

## 치 사

방장이신 지유 대종사의 덕화와 더불어 생명의 싱그러운 기운이 금정산을 장엄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원력은 금정산의 신록을 울창하게 이루어 가는 공덕의 발로(發露)라 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금빛 샘(金井)에 하늘의 물고기(梵魚)가 살았다는 호칭과 같이 금정산 범어사는 수많은 고승대덕을 배출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행도량입니다. 이러한 선대의 모범을 따라 오늘날에도 제방의 수많은 범어 문도들은 수행과 교화에 매진하면서 수승한 가풍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취임하는 경선스님 역시 선대의 수행정진을 오랫동안 함께하며 소박하지만 올곧은 수행자의 성품을 몸소 익혀왔으며, 특히 불교문화가 단순히 우리만의 성보가 아니라 민족과 고락을 함께해온 자랑스런 전통 문화유산임을 알리는데 깊이 헌신해 왔습니다.

이러한 원력과 실천은 현대인에게 절실한 정신문화의 가치를 한껏 북돋아 주고, 전통문화로서 민족의 역사에 함께한 불교의 가르침이 현대인의 삶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뜻 깊은 진산은 수행자의 진력이 울창하여 총림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금강의 주추가 되고, 전통문화의 가치가 현대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현대인의 삶을 얼마나 유익하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 뚜렷하게 대답하는 뜻 깊은 출발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금정산의 신록과 함께하신 사부대중의 신심과 원력으로서 부산 불교의 미래는 더욱 빛나고 선명해질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정진의 연속으로 명실공히 선찰 대본산이자 시대와 사회의 울창한 숲으로 한결

더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부산불교 발전과 변화를 위해 합심을 이끌어 오신 수불스님의 법향 가득한 공로와 오랫동안 소중한 마음으로 진력해 오신 부산불교 지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마음으로 함께 하신 부산시 정관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이기도 한 주지스님을 중심으로 사부대중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부산불교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신 향기로운 인연이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가 맑고 희망이 넘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불기2560년 4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